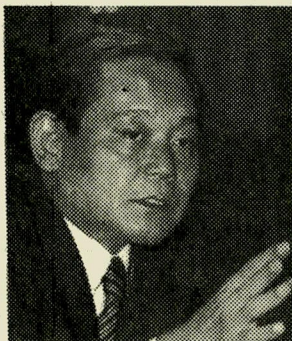


긴급조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신한국 창조에 걸맞는 신경영!’ ‘양이 아닌 질의 경제!’

국내 양대 재벌중 하나인 삼성그룹이 요즘 대대적으로 PR하고 있는 개혁 캐치프레이즈이다. 재벌2세 출신으로 재벌총수중 비교적 젊은 편인 이근희(51) 삼성그룹회장이 지난 6월부터 50여억원의 막대한 연수비를 투입, 1천5백여 그룹 주요간부들을 독일과 영국, 일본 등지로 불러내 삼엄한 ‘자아비판식 어전회의’를 전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최근 삼성의 다양한 변신 노력은 이에 대한 찬·반 입장 차이를 떠나 요 근래 세간의 주요관심사중 하나가 되고 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는 예외없이 앞다퉀 이회장의 발언내용과 오전 7시 출근제 등 삼성의 움직임을 호의적으로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정치권력 역시 김영삼 대통령의 재벌 면담 1번타자로 이회장이 선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삼성의 변신노력에 더없이 만족해 하는 인상이다. 사정바람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제제도 마치 새로운 정치상황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범답안’이라도 발

은 표현이 의미하는 바이다.

“냉전보다 무서운 경제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질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95년경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우리 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길이 없다. 그런데 삼성은 그동안 양의 경영, 정치산업적 사고방식에 젖어 2류 집산화하고 있다. 앞으로 경영 각부분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같은 이회장의 지적은 한국재벌의 상당히 솔직한 자기진단이다. 70년대 박정희정권에 의해 추진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외국자본과 기술 및 저임노동력에 근거한 철두철미한 ‘규모의 경제’였고 ‘양의 경제’였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양산된 ‘저임금 고품격 노동력’을 유일한 무기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와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여러차례 위기를 넘기면서도 양적 팽창을 거듭, 오늘날의 경제규모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대량생산체제에 의존한 이런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지난 87년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자기한계를 드러냈고 이어 동남아와 중국이라는 ‘저임금 노동대국’이 일본자본과 화교자본의 대대적 지원하에 강력한 경쟁자로 출현함에 따라 절대절명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냉전종식후 미국과 일본, EC 3국사이에 본

이근희 신경영, 위기탈출책인가, 기만책인가

이근희 ‘청사진’의 절대한계 분석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정·재계에 나도는 정치적 해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화된 정국의 활로?
한국의 엘빈 토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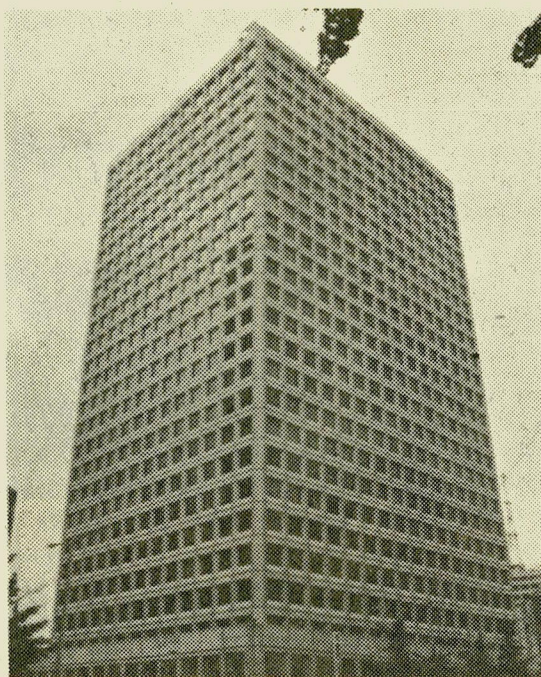
지난해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가 권력을 잡는 데 막판까지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것은 다름아닌 정주영 박태준 김우중 등 재벌총수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대통령후보로 출마하거나 또는 반김영삼 세력의 막후 지원세력으로서 활동, 마지막 투표함을 여는 순간까지 김영삼후보의 정권장악을 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고지에 오른 새정부의 재벌관이 고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

지난해 초 대세의 흐름을 일찌감치 읽고 친 YS노선을 택했던 삼성이나, 삼성이 지난 30년간 대구·경북(TK) 집권세력의 물적 토대중 하나였고 새 집권세력의 재벌관이 극도로 험악하다는 점에서 보면 정권교체후 초조하기란 어느 재벌과 마찬가지로 지었다. 실제로 새 정부 출

플러는 평소 한국같이 저임금에 기초한 대량생산체제 국가에 조만간 쇠퇴한 대신, 창조적 고급인력들이 최첨단 정보,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고부가가치를 낳는 다종 소량 생산체제 국가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의 대표적 미래학자.

이근희 회장이 공개적으로 삼성 기존체제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기 얼마 전부터 일부 언론지상에는 ‘한국의 엘빈 토플러’ 구상이 새어나왔고, 그로부터 얼마 뒤인 지난 6월부터 이회장은 신한국 시대에 걸맞는 경제구조 혁명, 경영 혁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역설하기 시작했다. 삼성의 이같은 변신은 예상했던대로 집권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과 재계의 냉랭한 사보타지에 초조해하던 새 정부의 환영을 받았고, 삼성은 새 정치상황하에서도 제1재벌의 위상을 안정감있게 굳혀가고 있다. 이상이 정·재계 일각에 나도는 ‘이근희 변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요지이다.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위기감은 삼성뿐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재벌이 예외없이 절감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대선출마 역시 ‘노인네의 망령’이라기보다는 ‘더이상 경제를 구시대 정치권력에게 맡겼다가는 내 회



이회장의 ‘경영개혁’은 언론매체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다. 그러나 이회장은 노동대중이 고부가가치를 낳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향, 기업내 관료주의와 분과주의 타파, 불량품 및 재고물량 제로화, 조기출퇴근제 도입,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고양 고부가가치 산업 중점개발 등등. 모두가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이자 해결방안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는 재벌의 ‘자기우월적 주인 의식’이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풀어 말하면

이다. 나를 슈퍼컴퓨터로 생각하라. 나하고 같은 단어를 써라. 나하고 시스템을 같이 하고 같은 코드번호를 쓰란 말이다.”

“한 방향이라는 게 있다. 이게 되어야 한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민족은 안되고, 우리 삼성에서 안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안되는 민족이다. 훨씬 어렵고 험난하고 복잡한 일도 해내는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향 하나가 안 정해지다니 이게 참 안타깝다.”

“내 말을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적어도 50번이상 계속 반복해 들어라. 자꾸 들어 외울 정도가 돼야 비로소 몸에 배이게 되고 실천이 가능해진다. 사장을 외국에 보낼 때도 내가 한 얘기, 녹음한 얘기를 구분해서 테이프를 켜 ‘이것은 30번 들으시오’, ‘이것은 테이프를 10번 듣고 VTR을 20번 들으시오’라는 숙제를 켜서 내 보내라.”

이같은 이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철저히 ‘반민주적’이며 ‘전제적’인 절대군주의 구태이다. 자신은 회사와 종업원, 국가를 생각하며 위기감을 느끼는 데 종업원들은 ‘월급쟁이’ 근성에 사로잡혀 ‘도덕적 무감중’ 상태에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식이다.

기업의 활로
“노동자 능력 향상”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 유수의 최고경영자들은 이회장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 능력 향상”을 강조한다.

(PPI) 소속의 기업경제 학자 더글라스 로스도 “변혁을 위한 권력위임”이라는 미국 새정권의 정책지침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동차생산의 로봇화 등 새로운 생산양식은 노동의 주된 형태를 근육노동에서 생산과정 체크라는 두뇌노동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는 생산시스템의 심장부에 위치하게 됐다. 그 결과 노동자의 경영참가, 성과급 배분, 종업원 지주제 도입 같은 직장의 민주화가 더이상 ‘사회적 이상’이 아닌 경제적으로도 ‘필연적인 것’으로서 직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과거 대량생산체제에서 요구되던 조직충성형 자본주의 보다는 ‘경쟁적이며 민주적인 자본주의’만이 살 길이라는 이런 주장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세계 선진국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삼성측이 다각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엘빈 토플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간노동’의
중요성 인식해야

과거 저임금 대량생산체제와 미래형 고부가가치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자리매김 하는 가이다. 창조적이며 전문적인 고급 노동인력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인간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 자본이나 정치권력은 이런 인력 확보

“니를 따르라” 삼성의 길... ‘직장민주화’ 선진국과는 반대의 길
노조설립 용인 등 민주적 ‘사내환경’ 조성만이 진정한 ‘신경영’